

“시대의식 가진 후학 양성해야”

동산 스님 선사상 주제 학술대회 열려

“인간의 몸은 의술로 치료하지만 마음의 병은 무엇으로 치료할꼬?”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 졸업을 앞둔 한 청년은 용성 스님에게 받은 이 질문에 출가를 결심한다. 이 청년은 사람들의 마음병을 고치기 위한 용맹정진의 길을 걷는다. 성철 광덕 무진장 고산 지유 스님 등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배출해 근현대 불교의 주춧돌을 세운 대선사 동산 스님(1890-1965)의 출가 동기가.

동산 스님 출가 10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사에서 스님의 위치와 수행관 등 사상과 생애를 살피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최용춘)는 10월 26일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의 선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산대종사의 한국불교사적 위상(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 △동산 스님의 선사상(용성선원장 월암 스님) △동산 스님의 계율(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동산 대종사의 수행관(고준환 경시대 명예교수) △동산 대종사와 범어사 불교정신(곽만연 동아대 교수) △동산대종사의 종교관(이희재 광주대 교수) △동산대종사 정화사상의 현재적 재조명(장삼목 동아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와 스님에 대한 집중적 고찰이 이어졌다.

“동산 스님 사상은 지계와 실천”
“공부하는 이는 계행(계행)을 깨끗이 해야 한다. 계를 우습게 알고 부처님과 조사

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부처님과 조사들은 그렇게 행한 일이 없다.”

정화불사 최전방에서 한국불교 기틀을 새로 마련한 동산 스님은 60여 년 동안 철저한 지계정신으로 수행 생활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스님의 지계와 수행, 실천에 대한 정신을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고준환 경시대 명예교수는 동산 스님의 수행관은 신해행증에 따른 삼학의 실천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고 명예교수는 “동산 스님은 특히 지계에 철저했는데 정혜상수로 깨달음을 얻어 대선사가 되셨으며, 그 후에 보림과 보살도 실천에 적극 나섰다”고 설명했다. 고 명예교수는 “범어사 해인사 조실과 조계종 종정을 세 차례나 지내며 정화운동을 펼친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흥주”라고 스님을 평했다.

한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도 ‘동산 스님의 선사상’ 발표에서 스님의 선사상에 대해 실천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월암 스님은 “동산 스님은 계정해 삼학을 구족할 것을 강조했으며 그 중 계학을 강조하며 계선일지(계선일지)와 선율경수(선율경수)의 선풍(선풍)을 신앙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동산 선사상의 맥미는 해행일치에 있다”며 “평생 일상의 행하는 바가 그대로 도의 실천이 돼야 함을 항상 설하셨다”고 말했다.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도 동산 스님의 지계정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목정배



동산 스님 생전의 모습

26일 범어사에 1000여 대중 운집
한국교수불자연, 스님 사상 조명
지계 및 실천 중시한 당대 선지식
도제양성 등으로 유입 잇기 나서야

교수는 “한국불교 정화운동에 있어서 동산 스님은 불교의 삼학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신 분”이라며 “항상 선수행을 앞세워 교단에 청정성을 불어넣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목 교수는 “동산 스님은 아직도 우리 모두에게 지계호계를 설하고 있다”며 “청정교단을 희구하는 모든 불자들은 이것을 여념하고 하루하루 마음공부에 매진해

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는 ‘동산대종사의 한국불교사적 위상’ 발표에서 “동산 스님은 삼학의 수행을 통해 시대문제를 회통했다”며 “유입을 잇기 위해 후학들이 시대 정신을 반영한 도제양성에 보다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동산 스님의 시대적 참 의미는 새로운 정법불교의 좌표를 정립한 데 있다”며 “스님이 강조한 수행 및 위계질서 확립, 사원 재정 합리화 운영, 현대적 포교, 도제양성, 복지사업 등이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불교인으로서 역사의식을 지닌 도제 양성이 동산 스님 사상을 잇는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동산경원 개원

한편,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10월 19일 동산 스님의 가풍을 이어 안거기간 동안 경전을 연찬하는 수행기간 동산경원(東山經院)을 개원했다. 동산경원은 법랍 5년 이상의 비구 스님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1일까지 임박 등록을 받는다.

이날 초대원장으로 취임한 무비 스님(전 교육원장)은 “범어사에 선원과 율원 경원이 개설돼 선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게 돼 기쁘다”며 학인 스님들은 물론 재가자들도 함께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중앙승가대 초대대학원장을 역임한 흥선 스님, 동산경원 초대 원장 무비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을 비롯한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술 · 문화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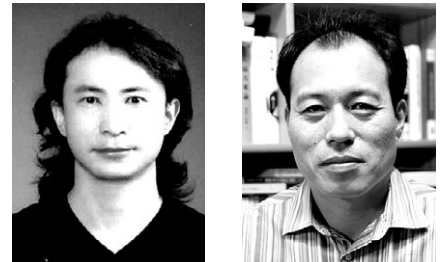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소장학자 지원대상 선정

논문부문에 김현구, 번역부문에 황정일 박사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가 매년 실시하는 불교소장학자지원사업에서 올해 수상자로 김현구 전남대 호남불교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황정일 동국대 강사가 각각 선정됐다.

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이사장 법상)는 10월 24일 인사동 하늘끝차마포경에서 2012 불교소장학자지원사업 대상자로 김현구 전남대 호남불교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황정일 박사(동국대 강사)의 ‘불교에 있어서의 시간론 연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현구 연구원의 ‘짚드라끼리띠의 유식사상 비판’은 짚드라끼리띠의 유식사상 비판이론을 검토한 논문이다.



김현구 연구원

황정일 박사

황정일 박사가 번역 중인 ‘불교에 있어서의 시간론 연구’는 세계적인 학자인 사사키 겐조 교수가 1974년 펴낸 책이다.

제9회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 수여식은 10월 3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포교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02)539-2631 노덕현 기자

한양대박물관, 디지털 사찰 복원전

황룡사, 불국사, 정림사 등 지금은 사라진 절들의 장건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디지털 복원전이 열린다. 한양대박물관은 동아시아건축역사연구실과 함께 2013년 2월 23일까지 한양대박물관에서 ‘한국건축문화재 복원과 창조’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전에서는 황룡사, 석불사, 불

국사, 정림사, 능사, 안학궁 등 한국의 대표적 건축문화재를 안경용을 사용하지 않는 3D 입체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또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아래 물이 흐르는 모습과 지금은 사라진 황룡사, 정림사 등 장건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노덕현 기자

인도철학회, 제35회 추계학술대회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는 11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35회 인도철학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철학에서 본 나·자아·영혼’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사론 피아품과 세친의 무아론 논증’

(박찬환), ‘여래장 사상에서 자아와 무아’(김성철), ‘인도철학에서 자아재념의 공유와 차별’(정승석), 아드와이따 베단나의 자아재념성 귀환과 사라진 이야기(박효영), 미망사의 삶과 행위주체로서의 자아(성정환) 등 발표가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학, <한국불교사연구> 창간

한국불교 역사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한국불교사연구’가 창간됐다.

한국불교사연구(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2012년 봄·여름호(제1호)를 펴냈다.

창간호에는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 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법(고영섭) 한국불교사 기

술의 사관과 주제(김순석) 한국불교사 기술에 나타난 주제와 쟁점(김용태) 한국 근현대 한국불교사의 서술과 고승(황인규) 등 논문이 실려 있다. 또 연구논문으로 이상호작용 관점에서 본 율원의 훈습론(김주주) △원표의 보림사 창건설 재고찰(계미향)이 게재됐다.

노덕현 기자

선리연구원, <선문화연구> 제13집 원고모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이사장 법진)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선문화연구 제13집>에 실릴 학술원고를 모집한다.

원고모집분야는 불교학과 불교사학을 비롯해 불교경제와 불교미술 등의 응용불교학으로 200자 원고지 150매 안팎의 분

량으로 국·영문 요약서를 포함해 11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비 및 게재료는 없으며 게재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된다.

노덕현 기자

‘이제 한국불교 세계와 소통한다’

한국불교학회 11월 9일 전국학술대회 개최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용표)는 11월 9일 오전 10시 부산 동명대 동명관에서 추계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불교와 세계불교와의 대화’란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는 다양한 세계 각국의 불교와 한국불교와의 비교연구 논문이 발표된다.

먼저 주제발표가 진행되는 2부에서는 ‘고대 티베트불교와 한국불교’를 주제로 차상엽 금강대 HK연구교수가 발표하고 안성두 서울대 교수가 논평할 예정이다.

2주제 ‘상좌부(上座部, Theravada)불교와 한국불교의 재가불자 역할비교’에 대해서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가 발표하고 조기룡 동국대 교수가 논평한다.

3주제인 ‘한국근대불교연구의 과제와 전망’은 조성택 고려대 교수가 발표하며 최유진 경남대 교수가 논평한다.

4주제 ‘근대시기 한국불교계의 유럽불교 인식과 그 작용’에 대해서는 김영진 동국대 HK연구교수가 발표하며 한성자 동국대 BK21연구교수가 논평한다.

또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1부행사에서는 1분과로 원혜영 고려대 박사의 ‘Dhammacakkappavattana Vagga(轉法輪品)의 구조 분석에서 의문점 찾기’,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의 ‘중국 선종에서의 좌선관 변천’, 이승곤 동국대 박사의 ‘칠정정(sattavisuddhi)의 지견정정과 유부(有部)의 견도(見道)·수도(修道)·무학도(無學道) 비교고찰’, 홍성기 아주대 교수의 ‘삼

독(三毒)에 의한 아성(我相) 형성에서 집착(執着)의 시간과 논리 구조’, 조현춘 가사체 금강경독송회장의 ‘가사체 반야심경과 조계종본 한글 반야심경의 비교’ 등이 발표된다.

티베트·상좌부·근대불교 3주제로 상좌부와 한국 신도 역할 비교 논길 자유주제 10여 논문 발표

2분과에서는 장정태 동국대 강사의 ‘한국불교와 민속종교의 다름과 화해-삼국사를 중심으로’, 중앙승가대 외래교수 경성 스님의 ‘두타행(頭陀行)의 활용방안 연구’, 송진섭 연세대 박사과정의 ‘대승불교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확인천도비법전수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신도가 보고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 방법. 환자와 가족분이 확인 가능

- 환자몸에 영가는 있는데 확인해줄수 없는 스님. 법사. 기공사. 치유자
- 조상령, 객영혼, 애기령, 지박령, 영가확인 천도제
- 최면이 안되는 환자와의 소통과 교류(최면과는 차원이 다름)
- 일반병. 정신병. 영가장애질환의 구분확인(질병의 원인파악)
- 난치병과 불치병위에 숨은 영가를 확인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확인
- 인체전기장을 통한 사람의 속마음 감정의, 의지, 정신의 사용유형 파악으로 삶의 현재 문제점을 진단 질병, 심리, 영가확인 몸에서 숨은 영가
- 스님들의 영가장애 천도, 불자들의 영가장애 확인 천도
- 파동교감법, 영혼과의 대화법.자율신경계통제법,오장육부진동교감법을 통한 난치병과 불치병의 치유
- 중풍, 치매, 당뇨, 디스크, 심장병, 화병, 빙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정신이상, 환경, 환시, 무속병, 무속인대물림의 단절,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원인 규명이 안되는 질환
- 영가의 수준 확인 저급영가-한과진척질병효소=무속신앙 / 중급영가-진리를 찾아 방향과 혼돈=도 닦다죽은 영가=다양한 종교, 철학, 신비학 추구, 이원성 / 고급영가-전생, 깨달음에 대한 갈망 종교를 초월한 영성=삼원성
- 죽은 영혼이 거처는 사후세계의 3단계변화의 의식과정 이해
-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보는 빛의 다양한 차원의 세계
- 내가 이세상에 온 목적과 이유 영혼의 목적어해-현재의 삶의 고통 속 에서 깨우쳐야 할 부분을 통해 사주팔자=자신의 영혼의 목적어해
- 수행에 진전이없는분, 깨달음의 지름길을 가고싶은분, 내안에 길

◆10회과정 스님, 법사, 포교원, 불자님중에 영가천도와 기도법 잠재능력, 퇴마천도능력전수생모집◆

- 기도명상, 만다라진언수련, 가슴열기, 영인수련, 자신영혼과의교감을 통한 병의, 귀신, 지옥과 천당 죽음의 2단계에서 벌어지는 죽은 영혼의 자각과 혼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없는 죽음과 삶 깨달음을 이해못함
- 교육은 화.목요일 오후 2시와 주말 토요일 오후 2시에 선택
- 교육과정은 스님의 형편에 따라 조정가능, 사찰 출장지도합니다.
- 확인이 안된 영가질환은 치유안합니다. 본인 확인 과정 꼭 거칩니다.
- 그동안 교육받은 스님들의 생생한 증언과 동영상을 통한 교육

인체전기 파동의학

인체전기 파동의학원 043)296-5258 / 010-9242-525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642-21 바우빌딩 5층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법자세교정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뼈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p>※특강: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p>	<p>8주 과정 토요일반</p>

▶ 특별강사 : KBS / MBC출연 / 대한(병)의원 진흥회장.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과 질환으로 고생하는자
▶ 특 전 : 자세교정사 자격 부여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9-517-1730**

대한보건의료진흥회
KOREA PROMOTION ASSOCIATION OF HEALTH MEDICINE